

지난달 광주·전남 주식투자 6개월만에 매수·매도 동반감소

코스닥 매도 전년 같은 달 비교해 25%↓매수는 24%↓ 중동발 리스크 고조에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투자 위축

지난달 광주·전남지역 투자자들의 주식거래가 매수·매도 모두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와 코스닥 장에서 매수·매도가 동반 감소했던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이다. 지역 개인들은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여유 자금이 없어진 데다, 중동발 국제 정세 악화로 주식 시장이 약세를 보였던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가 발표한 '24년 4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주식거래대금은 8조 1283억원으로 전월(9조 5971억원) 대비 1조 4688억원(15.3%) 감소했다.

지난달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매도거래대금은 코스피와 코스닥 장에서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 정세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코스피 장 침체로, 지난달 17일에는 2달여 만에 코스피 지수가 2580선으로 내려앉기도 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지표 등 경제지표 호조와 미 현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연준(FED)위원의 강경한 통화 정책 주장 등에 따라 국제금리가 급등했고, 월초 이란-이스라엘 공습 등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라 하락폭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더불어 경제침체 장기화에 따라 지역 투자자들의

총알이 부족했던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의 코스피 매수거래대금은 2조 2702억원으로 전월(2조 3351억원)보다 649억원(2.78%) 줄었고, 매도거래대금은 2조 4442억원으로 전월(2조 2560억원)에 비해 1882억원(7.70%) 감소했다. 코스닥 매수거래대금은 전월(2조 4131억원)보다 5941억원(24.62%) 하락한 1조 8190억원, 매도거래대금은 전월(2조 4045억원)에 견줘 6216억원(25.85%) 감소한 1조 7829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코스피 거래대금 감소폭보다 코스닥 장에서 하락폭이 컸던 것은 해외 투자자들이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순매수세 유입 및 월말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됨에 따라 굳어있던 광주·전남지역 개인들의 주식 거래 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분석된다. 지역 투자자들의 매수·매도거래대금이 동반 하

락하면서 전체 주식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지역민들의 전체 대비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83%로 전월보다 0.08%p 하락했다. 매도거래대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0.82%로 전월에 견줘 0.11%p 감소했다. 지난달 광주·전남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했던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였다. 한국거래소 광주혁신성장센터의 '4월 광주·전남 거래대금 상위종목'을 보면 코스피에서 지역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총 6640억원(매수 3324억원·매도 3316억원), 한미반도체(매수 1040억원·매도 969억원) 등 전월에 이어 반도체주 강세가 이어졌다. 그 외에도 지역 기업인 기아가 479억원 매수됐고, 545억원 매도돼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 상위

10개 종목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에서는 지난 3월에 이어 바이오·의료주의 강세가 2달째 지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코스닥에서 지역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거래한 주식은 'HLB'로 856억원 매수됐고, 817억원 매도됐다. 뒤이어 엔켐(매수 791억원·매도 690억원), 알테오젠(매수 569억원·매도 641억원)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20조 4493억원으로 전월 대비 3745억원(1.80%) 감소했다. 다만 코스피에서는 지역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월에 비해 금호타이어(3303억원·19.52%), 다이 나미디자인(212억원·20.26%) 등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효성중공업, '100% 수소엔진발전기' 세계 첫 상용화

울산 효성화학 용연2공장 가동 이산화탄소 배출량 대폭 줄여

효성중공업이 100% 수소로만 발전하는 수소엔진 발전기 상용화에 성공했다. 효성중공업은 지난달 중순부터 울산 효성화학 용연2공장에서 1MW(메가와트) 수소엔진 발전기를 가동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내외 기업이 천연가스, 석탄 등 다른 연료와 함께 수소를 사용하는 '수소 혼합연소 발전기'를

개발한 적은 있지만, 100% 수소로만 발전하는 제품을 상용화한 것은 세계 최초라고 효성중공업은 설명했다. 수소엔진 발전기는 수소와 천연가스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고, 출력 조정과 기동 정지가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수소 전소, 즉 수소만을 연료로 활용해 가동하면 석탄 발전 대비 연간 7천톤의 이산화탄소 저감이 가능하다. 수소엔진 발전기 여러 대를 병렬로 구성하면 발전량에 따라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대폭 줄일 수 있다.

발전기는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안전 검사를 통과해 상업 운용 허가를 받았다. 이번 수소엔진 발전기 상용화는 정부의 '2050년 수소 전소' 목표 시기를 20여년 앞당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효성중공업 측은 설명했다. 또 기업들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고, 오는 6월 시행되는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분산에너지법)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삼성전자 모델이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소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 AI 탑재 무풍 에어컨시스템 출시

사람 없을때도 자동 절전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한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을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기존 프리미엄 디자인과 고효율 냉방 성능에 레이더 센서 신규 탑재로 AI 기능을 강화해 에너지 효율과 편의성을 높인 제품이다. 새로 탑재된 레이더 센서는 ▲ AI 부재 절전 ▲ 동작 감지 쾌적 ▲ 부재 중 모니터링 ▲ 부재 건조 등의 기능을 지원한다. 레이더 센서가 사람 움직임을 감지해 절전 운전으로 자동 전환하거나 냉방 세기와 풍량을 알아서 조절한다. 또 스마트싱스와 연동해 레이더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알림을 주고, 연동된 TV나 조명 등 전원을 끄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기존 비스포크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

인의 핵심 기능도 모두 탑재했다. 리모컨 없이도 스마트싱스나 비스비 음성 인식을 통해 제어할 수 있으며, 음성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어 저시력자나 노약자도 사용하기 편리하다.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전 모델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이다. '와이드 무풍' 냉방 기능 사용 시 일반 냉방 강풍 모드 대비 소비전력을 61%까지 아끼고, 'AI 절약 모드'는 AI 쾌적운전 대비 소비 전력을 최대 20% 절감한다. 이무형 삼성전자 DA사업부 부사장은 "비스포크 AI 무풍 시스템에어컨 인피니트 라인은 다양한 AI 기능을 더해 절전부터 위생 관리, 보안까지 안심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고품격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의 제품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광주신세계 레인부츠 '헌터' 팝업 광주신세계 직원들이 레인부츠 브랜드 '헌터'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9일까지 본관 1층에서 '헌터' 팝업행사를 진행한다. 행사에서는 성인부터 키즈 제품까지 다양한 레인부츠 뿐만 아니라 기존 매장 에서 볼 수 없었던 리뉴 행사도 함께 선보인다. <광주신세계 제공>

전남도 지역기업 글로벌 역량 키운다

온라인 무역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

전남도가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와 함께 지역 수출기업 및 수출 준비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을 새롭게 시행한다. 온라인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은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업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필요한 교육을 수강하도록 설계됐다. 다양한 무역 관련 교육 과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무역실무, 마케팅, 무역운송 및 통관, 무역 마케팅 심화, 비즈니스 영어 등 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한다. 또한 장업을 준비하는 이들을 위한 무역업 창업 과정도 마련됐다. 전남에 소재한 수출기업이나 준비기업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특히 30만원 상당의 교육을 할인가로 제공하며 교육 수료 후 전남도가 수강료의 50% 현금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수출정보망 웹사이트를 통해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현곤 전남도 국제협력관은 "지역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하도록 지원하는 것은 전남도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이번 온라인 교육 바우처 프로그램은 국제 무역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프라인에서의 접근성이 어려운 지역 기업에 온라인 교육은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전남 기업이 더 넓은 시장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12일 새벽 금융서비스 일시중단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오는 12일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금융서비스를 일시중단한다고 9일 밝혔다. 광주은행은 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전산시스템으로 교체한다. 따라서 서비스 일시중단 기간 동안 자동화 기기(CD·ATM)를 이용한 입출금 및 이체거래, 인터넷뱅킹, 폰뱅킹, 스마트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체크카드·현금IC 카드·직불카드를 이용한 결제 거래 등 모든 거래가 중단된다. 다만 신용카드를 통한 물품구매 및 고객센터(1588-3388)를 통한 사고접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김동섭 광주은행 디지털개발부장은 "광주은행은 서비스 일시 중단 기간 동안 고객분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금인출 및 송금 등의 업무를 미리 처리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며 "새로운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시스템전환 작업으로 고객분들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더 편리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경상수지 수출 호조에 11개월 연속 흑자

3월 69억달러 흑자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1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69억3000만달러(약 9조 4664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작년 5월 이후 열한 달째 흑자일 뿐 아니라 흑자 규모도 2월(68억6000만달러)보다 커졌다. 이에 따라 1분기(1~3월) 경상수지는 168억 4000만달러로, 지난해 1분기(-59억6000만달러)와 비교해 228억달러 개선됐다. 한은은 지난 2월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경상수지 전망치로 상반기 198억달러 흑자, 연간 520억달러 흑자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4월에는 경상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 4월 통관기준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줄어들며,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배당금 지급이 집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3월 경상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상품수지(80억 9000만달러)가 작년 4월 이후 12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달 11억8000만달러 적

자에서 1년 사이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수출(582억7000만달러)은 작년 3월보다 3.0% 많았다. 앞서 지난해 10월 1년2개월 만에 전년 동월 대비 반등한 뒤 여섯 달째 증가세가 이어졌다. 품목 중에서는 반도체(34.5%)가 많이 늘었고, 지역별로는 동남아(12.7%), 미국(11.6%)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화학공업제품(-11.4%), 철강제품(-9.4%), 승용차(-5.7%) 등은 뒷걸음쳤다. 수입(501억8000만달러)은 13.1% 줄었다. 특히 에너지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원자재 수입이 18.4% 감소했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원자재 중 석탄, 가스, 화학공업제품, 원유의 감소율은 각 40.5%, 37.6%, 21.7%, 12.8%로 집계됐다. 반도체제조장비(-23.6%)를 중심으로 자본재 수입도 3.5% 줄었고, 승용차(-21.8%)·곡물(-13.1%) 등 소비재 수입도 9.5% 축소됐다. 하지만 상품수지와 달리 서비스수지는 24억 3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도 1년 전(-19억7000만달러)이나 한 달 전(-17억7000만달러)보다 더 커졌다. /장윤영 기자 zzang@

9월까지 김 825t 수입 무관세...고공행진 김값 잡힐까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의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김 시장에선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 증가로 재고가 부족해지면서 도매가격과 소매가격이 급등했다. 하지만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라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김 가격이 얼마나 내려갈지 불확실하다. 현재 마른김 재고는 4900만 송(100장)인데 9월까지 수입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물량은 270만 송에 해당한다. 지난해 김 수출 증량은 3만5446t으로 전년보다 16% 증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
| ↓ 코스피 | 2712.14 (-32.91) |
| ↓ 코스닥 | 870.15 (-2.27) |
| ↑ 금리(국고채 3년) | 3.450(+0.013) |
| ↑ 환율(USD) | 1370.10(+8.60) |